3과 천지창조 - 조성웅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주시고 몸 된 교회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더욱이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주셔서 주님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저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옵기를 바라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데 저희들 쓰임받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증거하며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을 더욱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고 계시는 발걸음은 속히 재촉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정로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을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Levantad en alto vuestros ojos, y mirad quién creó estas cosas; él saca y cuenta su ejército; a todas llama por sus nombres; ninguna faltará; tal es la grandeza de su fuerza, y el poder de su dominio.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은 차원이 다르지요?

물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만든 것과 많이 공부한 박사가 만든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전에 맹장이 사람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생각이 되어서 그냥 떼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살펴보니까 맹장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었죠?

공중 조종사가 되려면은 맹장이 없이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보고 또한 창조주를 알라고 말씀하신데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가운데 지식을 쌓고 또한 세상의 지혜를 배우면서 나름대로는 꽤 똑똑한 것처럼, 그리고 지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무언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 바닥의 기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래위에 쌓은 그러한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다 무너져버리면 그러한 것과 같지요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El principio de la sabiduría es el temor de Jehová;
Los insensatos desprecian la sabiduría y la enseñanza.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경외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옷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못 채우면 언젠가는 풀고 다시 채워야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큰 축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 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양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한 반대로 사람이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짐승에서 진화 된 그러한 동물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면 쉽게 이 세상을 떠나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목적을,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알지 못 하죠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고장이 나면 잘 잘 고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잘못 고치는 분이 계셔서 손만 댔다고 하면 이제 손도 못 대게 더 망가뜨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망가뜨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뜯고 본다는 거죠.

뜯고 보면 중요한 것도 막 떼어놓고 부품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잘 고치는 분들. 물론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설명서를 잘 읽어본다는 겁니다.

설명서도 읽어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설계가 되었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봅니다.

그렇게 아는 분은 고장을 잘 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를 분명히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셨죠?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막연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porque lo que de Dios se conoce les es manifiesto, pues Dios se lo manifestó.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Porque las cosas invisibles de él, su eterno poder y deidad, se hacen claramente visibles desde la creación del mundo, siendo entendidas por medio de las cosas hechas, de modo que no tienen excusa.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쉽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아도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호세야 6장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Y conoceremos, y proseguiremos en conocer a Jehová; como el alba está dispuesta su salida, y vendrá a nosotros como la lluvia, como la lluvia tardía y temprana a la tierra.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창조 하신 어? 뭘 보면 창조 하셨는 것인지 안다던지 뭐 창조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 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물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는 지구를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Tú solo eres Jehová; tú hiciste los cielos, y los cielos de los cielos, con todo su ejército, la tierra y todo lo que está en ella, los mares y todo lo que hay en ellos; y tú vivificas todas estas cosas, y los ejércitos de los cielos te adoran.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푸른 하늘이 있고 또 그 푸른 하늘 너머에 또 하늘이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하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보전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집이 이제 낡아지게 되고 언젠가는 부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도 지어놨다가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보호받고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운데서 질서 있게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싹이 나구요 또한 가을에는 추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있고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유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우리의 상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우주보다 크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 이런 분도 계셨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같이 땅이 큰 나라는 이제 대문을 딱 들어섰는데 집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갔더니 그때 집이 나오더래요

집이 좀 크죠?

대문에서부터 집까지 차로 하루 종일 달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대단하죠?

괜히 좀 뭔가 좀 얻고 싶고 친해지고 싶지요?

우리 주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Conozco a un hombre en Cristo, que hace catorce años (si en el cuerpo, no lo sé; si fuera del cuerpo, no lo sé; Dios lo sabe) fue arrebatado hasta el tercer cielo.

셋째 하늘이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으며 그 안에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Porque toda casa es hecha por alguno; pero el que hizo todas las cosas es Dios.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집도 저절로 생긴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그 집을 내려다보면 진짜 집 많죠?

그 많은 집중에 저절로 된 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작은 개집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지구가 저절로 되었다라고 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 대적하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은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절로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Porque contigo está el manantial de la vida; En tu luz veremos la luz.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학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쓰이고 또 정탐하는 목목적으로 쓰이고 그런다 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가보니까 뭔가 벌레 같기는 같은데 잘 알지 못하겠는 그런 벌레가 있기도 합니다.

잠자리같이 날아는다니는데 잠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보니까 그러한 첩보 수집을 위한 로봇 잠자리, 뭐 이런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겪고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어디 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수집하고 정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발달 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개미 한 마리를 그냥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식물을 만드신 분, 채소를 만드신 분, 과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물에 사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짐승과 육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풀과 채소, 나무, 새와 물고기 짐승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는지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Porque en él fueron creadas todas las cosas, las que hay en los cielos y las que hay en la tierra, visibles e invisibles; sean tronos, sean dominios, sean principados, sean potestades; todo fue creado por medio de él y para él.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Y él es antes de todas las cosas, y todas las cosas en él subsisten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가 기록 될 당시만 해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압니다.

공기 중에서도 산소의 성분, 질소의 성분 이러한 성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염이 되면 살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크게 생각했던 그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이지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 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 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Señor, digno eres de recibir la gloria y la honra y el poder; porque tú creaste todas las cosas, y por tu voluntad existen y fueron creadas.

모든 만물은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게시죠

시편 148편 3절에 보시면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Alabadle, sol y luna; Alabadle, vosotras todas, lucientes estrellas.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를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광명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Alabadle, cielos de los cielos, Y las aguas que están sobre los cielos.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148:5)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Alaben el nombre de Jehová; Porque él mandó, y fueron creados.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 148:9) 산들과 모든 산들 산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Los montes y todos los collados, El árbol de fruto y todos los cedros;

(시 148:10)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La bestia y todo animal, Reptiles y volátiles

(시 148:11)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Los reyes de la tierra y todos los pueblos,
Los príncipes y todos los jueces de la tierra;

(시 148:12)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Los jóvenes y también las doncellas, Los ancianos y los niños.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Alaben el nombre de Jehová, Porque sólo su nombre es enaltecido.
Su gloria es sobre tierra y cielos.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 하십니다.

심지어는 산들과 작은 산과 과목과 백향 백향목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짐승, 가축 또 곤충 하늘을 나는 새.

이 이러한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 방백들 백성들 청년 남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욱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Todo lo que respira alabe a JAH. Aleluya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라는 것은 정말 마땅한 도리이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고 그 육체를 지은 바 된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Porque sabemos que toda la creación gime a una, y a una está con dolores de parto hasta ahora;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 받고 있어요

사람의 죄가 많으니까요, 이 세상에 그러한 질서가 깨지고 또한 이변들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지금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정말 더 춥고요 더울 때는 더 덥습니다.

꽁꽁 얼어야 되는 곳에는 해가 많이 비춰 가지고, 눈이 녹아버리고 또한 더운 지방에서는 갑작스럽게 너무 춥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사람이 깨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서가 깨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는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또한 그 범죄함의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위하여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Porque así dijo Jehová, que creó los cielos; él es Dios, el que formó

la tierra, el que la hizo y la compuso; no la creó en vano, para que fuese habitada la creó: Yo soy Jehová, y no hay otro.

우주가운데 있는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하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참 놀랍지요?

그런데 그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주 가운데 정확한 질서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또 그 지구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떼어 놓으시고 태양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가 없습니다.

시계가요 약을 넣으면 시간 시계가 돌아가죠?

약을 넣어서 돌아가는데 그 시계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죠?

약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공급이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면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데 요즘은 어떤 시계는 태양열로 가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는 약 안 넣어도 되니까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시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은 저절로 나는 시계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에너지로 공급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최근에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출산 전에 그 아이가 입을 옷이라든지 또 누울 침대라든지 준비해 놓으셨었죠?

태어나면서 아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삽니다.

어린아이가요 뱃속에서 막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저는요, 배냇저고리는 메이커를 이걸로 해주시고 저는 우유는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국산 유기농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해 놓죠?

아이는 그냥 그 자연스럽게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Y los bendijo Dios, y les dijo: Fructificad y multiplicaos; llenad la tierra, y sojuzgadla, y señoread en los peces del mar, en las aves de los cielos, y en todas las bestias que se mueven sobre la tierra.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고 또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꽤 고상한 것처럼 또한 지식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역사도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밝으면 증거가 많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창조의 증거들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굳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지 않아도 다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요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함께 보여주시잖아요.

예전에 북편 하늘에 허공이 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다 믿었죠?

또한 땅속에 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죠.

3페이지 창조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 사람들은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말하며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연히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것이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증거가 없으며 실험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즉, 과학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derribando argumentos y toda altivez que se levanta contra el conocimiento de Dios, y llevando cautivo todo pensamiento a la obediencia a Cristo,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지요?

그래서 진화론을 포함한 모든 잘못된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살펴보고 믿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증거들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El extiende el norte sobre vacío,
Cuelga la tierra sobre nada

북편 하늘에 큰 허공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지요?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3500여년 전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그 그림을 누가 만든 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 그림의 가치는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싸인이 하나 딱 써졌어요?

우리 집 벽에 하나 그림이 그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세히 봤더니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면 미켈란젤로라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만 하면 제 몫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작가들은 자기의 이름을 써넣습니다.

누가 그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써놓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넓은 공간에 다가 창조 우주 우주 넓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저 북편하늘 한 곳에다가 큰 허공을 두셨습니다.

마치 거기에 하나님께서 싸인을 해 놓으신 것처럼.

좀 보고 알아보라고 누가 만드셨는지 좀 헤아려 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욥기 28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De la tierra nace el pan,
Y debajo de ella está como convertida en fuego

라고 말씀 하셨죠?

땅 속에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속에 불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불은 핵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액체성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도 그럴 것이 땅 속의 온도는 7173도 약 7200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철이 1500도에서 녹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뜨거운 온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액체 성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실제로 외핵은 액체 성분입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Dónde estabas tú cuando yo fundaba la tierra?
Házmelo saber, si tienes inteligencia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초를 어디에 놓았을까요?

기초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기초를 만드셨지요.

1936년 덴마크의 지질학자 잉게 레만은 뉴질랜드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기록을 분석하여 고체의 내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알만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9절에 뭍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이 하나로 모였죠?

그리고 뭍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대륙 하나의 대양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또한 역대상 1장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땅이 나누었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지요

대륙 이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알프레도 베게너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05년에도 1912년에도 1915년에도 그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그가 제창한 내용들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허무맹랑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만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고 하나의

대륙에서 나뉘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년전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세상이 나뉘어 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생명창조의 증거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욥기 12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Y en efecto, pregunta ahora a las bestias, y ellas te enseñarán;
A las aves de los cielos, y ellas te lo mostrarán;

O habla a la tierra, y ella te enseñará;
Los peces del mar te lo declararán también.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르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창조의 증거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지요?

레위기 11장 6절 11장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레위기 11장 6절은 토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토끼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냐? 되새김질 하지 않고,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되새김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쪽발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제 부정한 짐승이죠?

또 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하면 부정하고, 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하면 뭐죠?

돼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끼는 되새김질도 안 하고 또 쪽발도 갈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레위기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Asimismo la liebre, porque rumia, pero no tiene pezuña, la tendréis por inmunda.

토끼는 새김질을 한 대요.

일반적으로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반추동물은 위가 서너개여서 새김질이 가능하나, 토끼의 위는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토끼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자신의 1차 배설물을 다시 먹어서 즉, 되새김질하여 1차 때 소화되지 않은 셀룰로오스를 분해시켜 다시 배설하는 것입니다.

토끼는 레위기의 기록처럼 되새김질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느냐면 토끼가 이른 아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자기 똥을 먹었던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먹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새끼 낳는 기한을 조절하는 암사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1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10달 후에 출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법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에게 그 법칙을요 개별적으로 좀 다르게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다르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에요.

어떤 분은요, 안 되겠다 너는 한 한 50달 정도 잉태해라 하면요 한 거의 한 5년 가까이 아이를 배고 있어야 되겠죠?

참 어렵겠죠?

그러면 애 열 못 낳겠습니다.

아이 갖고 한 5년 있다고 낳고, 또 아이 갖고 한 5년 있다고 낳고 아무리 연년생이라고 해도 5년 터울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달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빨리 낳아라 해가지고 막 2달 만에 낳게 해버리고 그러면 그분은 1월에 낳고 한 또 한4월에 낳고 8월에 낳고 12월에 낳고 일년에 4명씩 4번씩 낳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지금 뭐 남북한 합쳐서 7천만 하는데요, 7억 되는 것은 일도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암사슴에게는 그것을 조절 할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7~8월에 수태하면은 겨울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이제 포식자들의 먹잇감으로써 아주 표적이 되기 때문에 착상을 늦춰버리죠.

그래가지고 다음해 봄에 태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헤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실제로 살펴보니까 알 수 있어 있었습니다.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

욥기 39장 27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특히 29절에 보면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동물 중 가장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것은 독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30m의 상공에서 땅에 있는 조그만 볍씨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시력으로 환산하면 5.0 또 어떤 사람은 6.0이라고 하는데 그런 5.0, 6.0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니까 연세가 드신 분은 돋보기 쓰지요?

또 근시가 많아가지고 조금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 쓰지요?

그런데 독수리한테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좋은 눈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력이 그렇게 안 나빠지도록 놔뒀어요.

만약 시럭이 나빠지면 독수리가 안경을 쓰고 다닌다던지 아니면 독수리들이 라식수술을 하기 위해서 안과를 많이 찾을텐데요, 그럴 일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신비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Te alabaré; porque formidables, maravillosas son tus obras;
Estoy maravillado,
Y mi alma lo sabe muy bien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만 잘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100조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몸을 이루는데 세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만들어지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세포가 계속 죽고 계속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젊을 때는 그 활동이 더 왕성하지요?

세포가 계속 죽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목욕탕에 가서 한 번 때를 밀어보시면 나오죠?

죽은 세포입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으면 덜 나오지요?

세포가 그만큼 이 활동이 왕성하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약 3만에서 3만5천개의 부품으로, 보잉 747비행기는 약 6백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체에 비하면 세포 하나만도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세포가 신묘막측한지요?

그 세 우리 몸의 일백조개 이상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많은 세포 가운데 단 하나의 세포만 보더라도 보잉 747비행기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잡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사람보다는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1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Porque la vida de la carne en la sangre está, y yo os la he dado para hacer expiación sobre el altar por vuestras almas; y la misma sangre hará expiación de la persona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최근이 되어서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가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가 하는 중요한 일은 먼저 음식을 통해 만들어진 영양분을 온 몸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몸의 조직이나 세포에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들여 온 몸에 나누어 주며 여기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허파로 날아와, 하파로 가져와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체온이 항상 36.5도가 되도록 하는 일도 하는데 우리 몸은 기관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피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열을 빼앗고 낮은 곳에는 열을 공급하여 온 몸의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한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명이 유지되려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려면 조직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임무를 피 속의 적혈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혈구의 주성분은 헤모글로빈이며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에 최적입니다.

적혈구의 구조는 산소를 담아 운반할 수 있도록 마치 도너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에 약 2억5천만개의 적혈구가 있으면 적정량이라고 하는데 73km의, kg의 체중이라면 약 300조에 달하는 적혈구가 10만km의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산소를 싣고 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몸에 있는 이 적혈구의 수,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적혈구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지요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겁니다.

마치 태양의 빛이 비춰져서 태양열로 가는 시계가 움직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태양도 비춰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 모든 것 사람 살 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 것 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치게 하면요, 그냥 죽는거죠.

적혈구는 약 120일 동안 활동하고 죽는데 한꺼번에 그 많은 숫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1초당 200만 개 이상의 적혈구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만큼의 새로운 적혈구가 생산됩니다.

그렇다면 적혈구 생산 공장인 골수에서는 1초당 200만 개의 적혈구를 계속 생산하여 혈관 속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똑딱하는 이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골수가요 적혈구 200만개 만들었어요

워낙 단위가 크니까 몇 개만 만드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 속의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해로운 이물질을 탐식하는 소위 식균 작용과 외부 침입자에 대한 항체를 생산함으로써 자기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세균을 먹으면서 세균에 의해 죽기도 하지만 새로운 백혈구가 계속 만들어져 보충됩니다.

적혈구나 백혈구는 뼈 속의 골수에서 만들어져 몸 안에서 약 2에서 9일 정도 혈액 속에서 활동하다가 지라와 골수에서 파괴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심지어는 저 모세혈관까지 피가 공급되고요 그 피가 공급되는데 혈관이 너무 얇으면요 막 줄서가지고 이쪽 혈액 한 방울 들어가고 저쪽 혈액 한 방울 들어가고 질서 있게 막 피가 통하고 있는 거 우리 잘 모르시지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만 검사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장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 기술 그 또한 피 한 방울만 가지고도 대장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육체의 생명에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은 창조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창조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론적인 증거자료들을 찾아내어서 대적하고, 대적하고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을만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Es, pues, la fe la certeza de lo que se espera, la convicción de lo que no se ve.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Porque por ella alcanzaron buen testimonio los antiguos.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Por la fe entendemos haber sido constituido el universo por la palabra de Dios, de modo que lo que se ve fue hecho de lo que no se veía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주를 우리가 아나니 말씀하셨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선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다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연구해 본다한들 바닷가에서 조개껍데기 하나 발견함보다도 못합니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우연히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창조의 능력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증거를 얻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증거도 참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 이 주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은 바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또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심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정작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며 또한 관심치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많은 영혼들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